그리스도 왕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뉴스(21)

소: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36길7
발행인: 이계철 라파엘 주임 신부님
편 집: 시흥4동 성당 기획, 홍보분과 편집실
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sh4d

염원이던 수녀님 모시기 일시적 아닌 상주 살레시오 수녀원 계약 전원 찬성

시흥4동 성당 사목협의회는 12월 16일(주일) 사목협의회위원과 각분과 산하단체장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4/4분기 확대 사목협의회와 송년회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각분과 월례보고와 일치와 화합의 일일호프 행사결과를 서면 보고하고 긴급 의결사항인 살레시오 수녀원과의 상주 계약 안건을 논의하였다.

긴급 의결사항에 대하여 주임신부님께서 '수녀님의 상주계약이 단기적 계약이 아닌 장기적으로 상주하는 지도 수녀님 한 분과 토요일과 주일 출퇴근하는 직능별 수녀님 두 분을 파견사항의 계약조건으로 수녀원에서 연락이 왔다. 직능별 파견 수녀님께서는 청년과 주일학교의 예비자 교리를 담당할 것이며, 상주할 지도수녀님은 평일 새벽 성당 문 개폐와 전례와 제대봉사, 평일에 여러 단체의 심신활동을 성무활동으로 함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쁘레시디움 회합에 참석하여 훈화도 하게 되는데 이 계약 조건은 사목협의회가 가부를 지어주어야 한다.' 고 말씀하셨다. 이에 산하단체장 전원이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모 분과장은 '몇 년 전에 본당 전 신자들이 수녀님을 모시기 위한 매일 묵주기를 바쳐왔다. 그 때 우리가 성모님께 드린 청원기도를 지금 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고 말하였다.

이어 사목협의회 남성구역분과에서 실시한『일치와 화합의 일일 호프』행사의 자체평가가 있었다.

여러 분과에서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고생이 많았다. ① 갑자기 몰려오는 교우들에 대한 서빙 준비부족 ② 음식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해물파전이 설익었으며, 배달이 미숙하여 우왕좌왕 했다. ③ 예상인원 200명분을 준비하였으나 음식이 부족했다. ④ 뒤풀이 음악이 없어 아쉬웠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차후 다른 행사를 위해 지적된 부분은 보완하고 본보기가 될 행사로 거듭나길 바라며 자체평가를 마쳤다.

남성부회장이 서면으로 발표한 결산 내역은 총수입 5,083,000원, 식자재비와 기타운영비 지출 2,432,670원, 이익금 2,650, 330원이었다.

주임신부님께서는 각분과장과 단체장에게 이번행사의 노고를 치하하며 직접 담근 더덕주를 들고 일일이 권하는 모습을 보이셨다.

2018년 확대 사목협의회와 송년회는 신부님의 축복으로 마무리 되었다.